

손놓은 '개물림' 대책...대물림 되는 사고

지자체 동물등록·반려견 집중 관리 한달간 단속·지도 전혀 없어 사고 급증 속 광주 지난해 37건 ...시민들 "무서워서 산책도 못해"

광주 도심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단속해야 할 광주시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물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위한 집중 단속·지도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광주시는 단속은커녕 단 한번도 현장 지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추진했다.

이 기간 전국 자치단체가 총 778건을 점

검해 482건의 지도·단속을 펼쳤지만, 광주시는 단 한건의 지도·단속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에 16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광주 5개 자치구 단속·지도 담당자는 각각 1명이거나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현장 지도·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측의 설명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고, 기르는 사람의 이름·전화번호와 동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식표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반려견 주인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인력난과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반려견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A(40)씨가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갔고, 같은 달 지난 13일 밤 9시 20분께에는 시민공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중이던 B(여·16)양이 중형견에 공격 당했다.

이처럼 광주에 반려견이 증가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출동

한 개물림 사고 역시 2017년 14건에서 2018년 37건으로 1년 새 두배 넘게 급증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더하면 광주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김운택(61·광주시 북구)씨는 "광주천변만 가도 목줄을 하지 않는 개들이 수도룩해 언제 달려들지 몰라 산책하기도 무섭다"며 "법을 어기는 무책임한 견주와 개물림 사고가 갈수록 늘어 불안이 커지는 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있는 공원 99곳을 각 구청에서 1명씩 관리하고 있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며 "막상 민원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견주가 현장에 없거나 발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불법 취업알선 의혹 수사

앱 게시판에 "공장 관계자가 입사 비밀 수천만원 받아"

경찰, 채용 사기 가능성도 조사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채용과정에서 불법 취업알선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가 취업에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명 기업 취업을 미끼로 한 채용 사기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스마트폰 앱 익명게시판에 "지난 7월께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가 생산직 입사를 비밀로 개인당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게시자는 "자신의 지인 2-3명이 지난 7-8월께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대가로

각각 3000-4000만 원의 현금을 입금했다"는 등 불법 취업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입사 예정자 중 일부가 음주운전 적발 등 개인사정으로 입사가 취소되면서 빈자리가 생겼고,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가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자리에 넣어주겠다"며 현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게시자는 또 이들은 지난 8월 "입사가 확정돼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개연성이 있고, 불법 취업알선 정황이 포착됐다"며 "채용사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간부 공무원 기소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을 기소,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지 7개월 만이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삼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운영열 감사위원장 등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나포

서해어업관리단은 2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업일지에 조업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등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98t)를 나포했다.

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어업협정선 내측 약 34km지점

인신안국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7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일 목적으로 입·출역과 어업활동 내용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단은 중국 선장을 대상으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불법주차 신고하러 촬영...트럭 주인 항의하자 '먹살잡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트럭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트럭 주인 이항의해오자 먹살잡이를 했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차차를 해놓고 장사를 하고 있던 B(48)씨

의 트럭을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는데, B씨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옷깃을 잡아 끄는 등 먹살을 잡았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지나 다니는 횡단보도를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B씨가) 대뜸 반말을 해오자 화가 났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차량 통행 막은 철제 울타리

광주시 남구 봉선동 V사우나 건물 인근 도로(공터)에 최근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수십 년전부터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 통로로 사용됐지만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2년여 전에 도로 중앙에 수십 개의 페타이어를 설치한 데 이어, 수일 전에는 아예 철제 울타리까지 세워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아빠찬스로 학위 취득? ...조선대 전·현직 교수들 검찰 송치

조선대학교 현직 교수의 아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그 동료들의 특혜를 받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동부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선대 공과대학 전·현직 교수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조선대 공대 현직 교수의 아들인 A씨의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을 지도하면서 출석과 과제 평가에서 특혜를 줬

대학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지도하는 수업을 포함해 7학기 동안 20여개 과목에서 특혜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넘겨진 교수들 중에는 A씨 아버지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조선대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A씨가 지난해 2월 취득한 공학박사 학위의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술값 안내고 되레 행패 부린 '동네조폭' 2명 구속

영업 방해하고 물건 부숴

광주서부경찰은 20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조폭' 2명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47)씨와 B(50)씨는 지난 13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영주동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않고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출

소해 누범 기간인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일대 슈퍼와 과일상인들에게 외상과 현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은 범죄의 상습성과 도주우려를 고려해 이들은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